

책이 있는 생활의 다짐

鄭鎮肅

「출판저널」 발행인

「출판저널」은 지난 해 7월20일자로 창간된 이래 짧은 동안이나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 '책의 문화'를 드높이고 '책읽는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소임을 다하기에 힘써왔다. 아직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서두름이 없이 새해에도 꾸준하고 착실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어가지 斷想으로써 스스로를 체크질하는 다짐으로 삼고자 한다.

“모든 이에게 책을”

1972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도서의 해'였다. 유네스코가 '세계도서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모든 나라의 대중과 정부 및 각종 국제기구의 관심을 책의 구실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즉, 당시 유네스코 총회는 '모든 이에게 책을'(Books for All)이란 테마로 '세계도서의 해'를 선포함을 계기로 '圖書憲章'을 채택하였다. 이미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오늘의 대다수 독서인은 '도서현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할 것이지만, 오늘에도 깊이 재음미해볼 만한 명구로 점철돼 있다.

'도서현장'은 그 前文에 밝히고 있듯이 "도서는 평화, 발전, 인권의 신장,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대한 투쟁 등 유네스코의 목표 실현에 근원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읽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독서가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명시하고, 제2조에 '도서는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규정한다 이어 제3조에는 '사회는 著作者들이 창조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현장은 모두 1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4조 이하에서는 도서문화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출판사업, 도서생산공장, 도서판매업, 도서관, 문서이용, 국제간의 자유교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현장에 담긴 정신은 「출판저널」이 현실로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도서는 교육의 기본

오늘의 독서환경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며, 독서인 자체의 가치관도 다양화·분극화하여 자못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은 經濟濟民과 福利厚生의 근간이요, 첨점이라고 우리의 선현들은 무수히 외쳤지만, 건국후 40년의 교육은 이 외침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겨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사람을 무시한 물질숭배의 도착된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다. 어느 구석을 가거나 '돈'만 아는 풍조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같은 우려에 냉철히 대처할 經國大道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오직 책에 의존하는 교육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이같은 우리의 신념은 구랍 17일자 京仁日報에 소개된 "대부분 國校 도서실 없어-21개 校중 1곳뿐, 학습지도 애먹어"라는 제목의 기사로써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 加平郡 관내 국민학교 대다수가 도서실을 갖추지 못해,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학습지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평군 교육청에 따르면, 군내 21개 국민학교 중 단 1개교만이 도서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나머지 20개교가 도서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 어린이들이 정서를 순화시킬 동화책 한권 제대로 읽을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습복습할 참고서적조차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수가 크게 줄어 남아도는 교실을 도서실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곧 「출판저널」이 힘써야 할 일이 '책이 있는 교육' '책이 있는 생활'로 우리 모두의 환경을 바꾸도록 인도하는 일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출판저널

1988년 1월5일 제9호
격주간 매월 5·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 | |
|--------|---|
| 권두 에세이 | 2 나의 學問, 나의 讀書 / 李萬甲 |
| 특집① | 4 '독서중산층'은 책을 얼마나 읽나 |
| 특집② | 8 1988년을 향한 '출판인의 목소리' |
| 특집③ | 30 정담 - 출판 편집자와 에디터십 |
| 초점 | 7 통계로 본 '87년의 출판동향' / 李斗暎 |
| 著作 구상 | 19 「한국인의 교육철학」 / 金仁會 |
| 집필중 | 19 장편 「高地平話」 / 복거일 |
| 출판화제 | 20 '황금알' 낳는 인기작가들 |
| 시평 | 22 詩, 그 秘義의 언어들 / 崔夏林 |
| 지금 독서중 | 24 尹恩基의 「情報學 특강」 - 국제공향 金鎭圭 감사실장 高銀의 장편서사시 「白頭山」 - MBC 陸哲秀 부장 25 헤르만 헤세의 「知와 사랑」 - 현의원장 李鎭錫씨 W 에베레트의 「가장 소중한 것」 - 가정주부 宋淑敬씨 26 金容沃 「女子란 무엇인가」 - 대한중기 朴贊悅계장 소설집 「일어서는 땅」 - 은행원 朴信子씨 |
| 저작권 코너 | 27 일본에서 본 저작권중개업의 明暗 / 韓勝憲 |
| 서평 | 28 「한국 21세기」 - 崔禎鎬 「전망을 위한 성찰」 - 洪廷善 29 「土地問題와 地代理論」 - 朱宗桓 「韓國服飾美의 研究」 - 金泰俊 |
| 세계의 출판 | 34 모든 世界名作을 '해피엔딩'으로 35 미국의 '87년도 최우수도서 16권 18 책주변의 이야기 36 신간안내 42 200자 안내 44 정기간행물 출판기사색인 45 신간도서목록 48 독서퍼즐/정기구독 안내/社告 |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윤학중

謹賀新年

愛讀者와 編輯書評委員 여러분의
聲援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1988년 새해
출판저널 任職員 일동

알림 「출판저널」은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1987년 12월 20일자를 1988년 1월 5일자 新年號(제11호)로 발행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